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17. 버가모 교회에 약속한 상급

2013. 04. 28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약속하신 상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함께 잘 들으시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2:12~17]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13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4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교회가 세상에서 대우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것이 곧 사단의 위에 앉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권고를 들을 차례입니다.

답: 예, 감사합니다. 지난 공부를 간단히 복습해주셔서요. 사실 당시 버가모 교회의 실상은 계시록 외에 기록된 것이 없으니 대부분이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디바의 순교는 터툴리안이 말한 사실이 있으니 사실이겠지요. 그 외의 것은 계시록의 이 기록에 의하여 짐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상태를 잘 보시고 말씀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 역사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한 콘스탄틴의 호의가 교회를 높이 들리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14절)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3~25장에 기록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로 교인들이 비교적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버가모 시대의 발락은 누구이며, 발람은 누구일까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발락, 즉 모압 왕인 발락이 발람을 청했거든요.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콘스탄틴이 황제가 발락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나 황자의 가정교사였던 락탄티우스가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황제의 친구가 되었고 황제의 종교정책에 깊

속이 간여했지요. 321년에 3월 7일 일요일 휴업 칙령을 내리는데도 유세비우스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들이 결국 성경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과 짝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했지요.

[약4:4]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엄연히 발람의 교훈으로 우상의 제물을 취하고 음행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황제는 이교의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버가모 왕국을 로마에 유증(遺贈)한 마지막 버가모 왕인 아탈루스 3세가 왕국을 로마에 바치면서 이교 제사장의 직무와 명칭도 로마에 바쳤습니다. 그 명칭이 “폰티팩스 막시무스”입니다. 이 직무를 최초로 취한 황제가 아구스도이고 그 후 역대황제들이 이 칭호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칭을 버린 로마 황제가 있는데, 375년에 황제가 된 그라시안(Gratian) 황제입니다. 그러자 기독교 로마 감독이 이 명칭을 얼른 자기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황의 공식 칭호 중에 폰티팩스 막시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위를 교회에 단단히 세운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버가모 교회에 아주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2. 그런 상태이니까 예수께서 책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네요.

답: 사랑이신 예수께서 버가모가 회개하여 진리로 돌아와서 생명을 잘 지키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어봅시다.

[계3: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처방은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곳에서 속히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지만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꾀를 발람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압 신의 축제에 초청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신전 창녀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도록 꾀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것처럼 그 시대에도 소위 교부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대신에 관행과 전통을 앞세워서 미트라교와 기독교를 묘하게 합치게 했지요. 태양에 십자가가 있는 환상은 태양신교와 기독교를 혼합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 환상입니다. 속히 거기서 돌이켜서 진리로 돌아와야 하는데, 버가모 교회가 실패하고 교회에 폰티팩스 막시무스를 앉혔습니다. 교회 자체가 사단의 위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그렇게 되었으나 교회 전체가 회개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아가 자기의 회개를 온 나라의 회개로 연결시킨 사상과 같습니다. 비록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산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의 허물을 회개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속히 임하여 그렇게 하실 것인데, 싸우는 대상은 발람의 교훈을 용납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강권하실 것이며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은 영생을 잃을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지금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임하고 있다. 말씀대로 바르게 진리를 깨닫고 따르지 않으면 영생을 잃을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싸우신다는 말씀은 형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 목적을 거절하면 그냥 구원에서 제외되니까 사망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요3:17을 읽어봅시다.

[요3:17]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만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해도 바른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정죄되어버립니다.

[요3: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심판의 실상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사단의 위가 되어버립니다.

3.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지요. 그 상급에 대하여 말씀해주시지요.

답: 예, 먼저 성경말씀을 읽고 이야기 합시다.

[계2: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매 교회마다 있는 말씀이고,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허락한 상급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것과 그의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는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황금 향아리에 담아 언약궤 안에 넣었던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감추어진 만나는 세상에서는 그것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외경 마카비 하서 2:4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언약궤를 어딘가에 숨겼다고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그 언약궤를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유대인들이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다고 하자, 그 만나를 먹은 자도 죽었지만 예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러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서 온 산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만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감추인 만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보증이지요.

4. 만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은 무엇입니까?

답: 새 이름과 흰 돌, 이 두 가지는 꽤나 어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시록에는 흰 것과 새 것이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볼 때 여기서 '흰'것과 '새'것은 장차 천국에서 맞게 될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계시록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다음 구절들이 이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1:14; 3:4,5,18; 4:4; 6:2,11; 7:9,13,14; 19:11,14; 20:11; 21:1,2,5절 등입니다. 그리고 이 '흰 돌'에 대한 해석은 많은데요, (1) '흰 돌'을 이방의 미신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황제 숭배 사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황제의 상급, 즉 영원한 왕의 상급으로 보는 것. (2)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것처럼 하늘에서 내린 흰 돌로 보아 천국 출입증. (3) 당시의 풍습에서처럼 재앙을 막기 위해 사용한 흰 돌에다 알 수 없는 이름을 새겨 넣은 것에서 유래하여 재앙이 다시없을 것. (4)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사용한 무죄 표시의 흰 돌로 완전한 용서의 약속. (5)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인 보석으로 예수님의 가슴에 안길 것. (6)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우승의 기념으로 새겨 주었던 흰 돌로 승리의 상급. (7) 연회장에서 초대외 표시로 사용한 흰 돌로 하늘 연회의 초대장. 등등입니다. 1번 만 빼고 모두 합쳐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승리자에게 주는 상급이며, 영광스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게 하는 상급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새 이름”은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바꾸어준 사건들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름은 존재, 성품, 인격, 지위 등의 총화입니다. 이름은 바로 자신과 동일한 것이라는 사상이 성경의 이름 사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와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사야 30:27에는 “보라 여호와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뿔뿔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오는 것은 이름인데 그 뒤의 설명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것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러므로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가 새 사람이 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이름을 얻은 것을 입증하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라고 예수께서 확인한 사실을 뜻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빌4:3]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자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했는데 버가모 교회에 이긴 자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로 기억된다는 것을 보증한 것입니다.

5. 감사합니다. 결국 이긴 사람들의 구원을 보장하는 약속이라고 이해됩니다. 에베소나 서머나나 모든 교회와 그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은 다 구원이 확실하다는 보증을 받는다는 것이 상급의 공통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로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답: 예, 그럴 차례가 되었군요. 그러면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성경말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요.

[계2:18~29]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0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

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22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24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25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6. 이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같이 먼저 두아디라 도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답: 그게 순서겠지요. “두아디라”의 옛 이름은 “펠로피아(Pelopia)” 또 “유힌피아(Euhippia)” 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아키사르'(Akhissar)입니다. 이곳은 버가모와 서머나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공업 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일곱 도시의 위치를 말할 때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서머나 버가모로 북상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온다고 했지요. 그렇게 두아디라시의 위치가 서머나와 버가모의 중간 위치 쯤 되는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40km 되는 지점입니다. 이 도시에는 모직업, 피혁업, 면포업, 청동업, 봉제업, 염색업, 도자기업, 제빵업, 노예 매매업이 성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허무스 강 계곡과 가이쿠스 강 계곡을 연결하는 안전한 긴 계곡에 위치하고 있고, 언덕이 없어서 성채를 만들 수 없는 지형이었고 일곱 도시 중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미미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주전 190년 경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아폴로(Apollo)”, “아데미(Diana)”, “삼바다(Sambatha)” 등의 신전이 있었으며, 공업이 발달하게 된 구리산업 조합이 유명하였습니다. 빌립보에서 개종한 자주 장사 루디아가 이곳 출신입니다.(행16:14) 두아디라라는 이름의 뜻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달콤한 수고의 향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전도하였거나 루디아가 전도하여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 본문을 읽어보니 일곱 교회에 편지 중에 가장 긴 편지 같습니다. 예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할 말씀이 가장 많았다는 뜻이 아닐까요?

답: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7절, 서머나 교회는 4절, 버가모 교회는 6절인데 비해 이 교회에는 12절입니다. 앞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것보다 배가 넘는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아마도 예수님께 대단히 많은 말을 들어야 할 일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지요.

8. 그런데 이 교회는 당시의 그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 표상으로는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교회입니까?

답: 예, 버가모 교회 시대 다음 시대이니까,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대는 교권이 정치권에 높임을 받기 시작하여 교권정치의 기틀이 놓인 538년경부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517년까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교권로마의 전성기의 끝인 1798년까지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1798년까지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말할 것입니다.

9. 그러면 본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 예, 여기는 예수님이 “그 눈이 불꽃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도 1장 14,15에 있는 내용이고 또 다니엘 10:6에 기록된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이것은 1:14,15을 설명할 때 이미 말씀드렸지요. 불꽃같은 눈은 구석구석을 빼놓지 않고 감찰하시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아주 적합한 표상입니다. 형형한 눈빛은 또한 두렵기도 한 눈빛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형편이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하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무엇인가 숨기고 있을 때 그것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지요.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고 하든가, 또는 눈에 불을 켜고 대든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하는 아주 교묘하게 숨긴 것이 있다는 암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예사로 보아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걸보기로는 똑 같은데 전혀 다른 무엇이 있는 상태를 살피고 찾아내시려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렇게 찾는 것은 거짓과 진리를 분명히 구별하여 밝히 드러내시려는 주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도록 이끄시고자 하는 간절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10.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뜻입니까?

답: 이 말씀도 1:15절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이라고 1:15에 말씀했지요. 그 풀무는 죄의 세상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세상에서 고난을 겪은 발, 그 고난을 이기신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고난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발로 나타나신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예수님께 고난을 당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죄의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풀무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셨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다시 예수님을 풀무 불에 단련하는 고통을 주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단련된 발로 이 교회에 걸으시면서 불꽃같은 눈으로 교회의 허물을 찾아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강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과는 스스로 감당해야 하지요. 이렇게 교회를 순찰하시면서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힙니다. 계시록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가 유일한데, 그것도 이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나 진짜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또는 가짜 하나님의 아들을 진짜인줄로 착각하고 숭배하거나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정관사가 붙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의 세상에서 고난으로 단련된 발로 교회를 거니시면서 불꽃같은 눈으로 교회를 구석구석 살펴서 바르게 지도하기 위

하여 총력을 기울이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11. 목사님의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답: 그렇지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편지 내용 전체를 보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별을 올바르게 수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다른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사대 교회로 드러나게 되지요.

12. 그렇게 되는군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만나야 되겠습니다.

답: 시간이 그렇게 되었군요. 오늘날 우리는 그래도 교회가 세상에서 대접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결과 교회가 총체적으로 두아디라 현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이며, 교인들 개개인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진리의 정로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들으시고 성경을 잘 살펴서 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시록을 기록하여 주셔서 우리가 역사를 따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권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 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